그르기치 힐스, 첫 잔부터 마지막 한 모금까지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9

인터뷰 | 美그르기치 힐스 CEO **바이올렛 그르기치**







❶ 마이크 그르기치 생전 함께 포도밭을 거닐고 있는 바이올렛 그르기치. ❷ 왼쪽부터 그르기치 힐스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 2021, 그르기치 힐스 파리 76 샤도네이 2023. ❸ 파리 76 샤도네이가 만들어지는 카네로스 빈야드 전경. /안상미 기자, 나르셀라

"그르기치 힐스의 와인은 마지막 한 모금이 첫 모금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잔에 따른 순간부터 향이 겹겹이 열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얼굴을 보여 준다. 한 편의 소설처럼 계속 읽게 되고, 그때마다 반전이 있는 와인이다."

미국 나파 밸리 그르기치 힐스 에스테이트(Grgich Hills Estate)의 바이올렛 그르기치 최고경영자(CEO)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온 원칙은 '균형감'"이라며 "와인이 묵직하든 가볍든 향과 맛, 산도, 타닌, 알코올 가운데 어느 하나 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몇 년에 걸쳐서뿐 아니라 마시는 동안 잔 안에서도 계속 자라고 발전하는 와인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르기치 힐스는 1977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첫 삽을 떴다. 창립자 마이크 그르기치는 바이올렛의 아버지다. 크로아티아 작은 마을에서 자라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그는 "미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고, 나파 밸리는 낙원"이라는 교수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

유명한 와이너리들을 거치며 당시 최신 양조 기술을 섭렵했던 그가 양조 철학을 세운 것은 친구의 홈메이드 와인을 맛보면서였다. 온갖 기술을 동원한 자신의 와인을 제쳐두고 정제도 여과도 하지 않던 친구의 와인만 정신없이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바이올렛은 "좋은 포도를 구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와인이었다"며 "그때 최고의 포도를 쓰고, 최소한으로 손대고, 사람들이 잔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진짜 철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원칙이 빛을 발한 게 바로 샤토 몬텔레나 샤르도네다. 그가 와인메이커로 만든 두 번째 빈티지 1973 샤르도네가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프랑스 부르고뉴 화이트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나파가 세계 와인 지도에 이름을 올린 순간이자 그가 '샤르도네의 왕'으로 불린 계기다.



올해는 파리의 심판 50주년이다. 그래서 50주년 빈티지인 '그르기치 힐스 파리 76 샤도네이' 2023 빈티지가 선을 보인다. 병 라벨도 의미를 살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장미창 무늬를 눌러 새겼다. 국내에는 내년 중반쯤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파리 76 샤도네이는 서늘한 기후의 카르네로스 빈야드 포도로만 만든다. 그것도 1980년대에 심은 것들이다. 당시 식재 직후 필록세라가 번지자 물을 깊게, 간격을 길게 줘 뿌리가 필록세라가 싫어하는 모래층을 뚫고 내려가게 했다. 나무 사이사이에는 저항성 대목을 심었다.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대신 택한 방법이 통했고, 덕분에 지금도 올드바인에서 와인을 만든다.

2023 빈티지는 잘 익은 복숭아와 사과향이 올라오고 생동감 있는 산도와 함께 은은한 짭조름함이 길게 이어진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보니 화이트 와인이지만 부위별 한우 구이는 물론 광장시장의 전과도 잘 어울렸다고 한다.

그르기치는 2000년 유기농, 2003년 바이오다이내믹에 이어 2018년 '재생 유기농(Regenerative Organic)'으로 농법을 개선해 왔다. 이제 유기농법은 거창한 구호도,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도 아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다.

그는 "재생 유기농법 덕분에 나파 밸리를 황폐하게 만든 폭염이나 산불로부터 보호받는다"며 "2022년 화씨 118도(섭씨 약 48도)의 폭염이 열흘간 이어졌을 당시 이웃한 포도밭은 포도를 모두 잃었지만 우리는 큰 충격 없이 안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르기치 힐스의 수출 시장 부동의 1위다. 관세 전쟁이 있기 전부터 이미 미국 와인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캐나다도 앞질렀다. 와인 시장 자체가 주춤하고, 나파에서도 가족 경영 와이너리는 자취를 감추는 쉽지 않은 시기지만 그르기치의 와인은 오히려 판매가 늘었다. 비결을 묻자 아버지 마이크가 평생 입버릇처럼 남긴 말을 들려줬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어라."

/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공연부터 애니까지 특별관서 본다

CGV, 11월 기술특별관 라인업 공개
임영웅 공연, 듄, 헥스 등 다양한 장르

CGV가 공연 실황과 애니메이션,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기술 특별관에서 선보이며 관객 공략에 나선다.

CGV는 11월 기술 특별관 라인업으로 '듄', '임영웅 I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 '폭설', '헥스: 마녀왕국', '진격의 거인: 자유의 날개',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 등 6편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듄'은 오는 17일까지 IMAX로 상영한다. 사막 행성 아라키스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주인공 폴의 운명을 그린 작품으로, 광활한 사막과 우주선 등 대규모 영상과 사운드를 IMAX로 감상할 수 있다. 오는 12월 16일 시리즈 완결편 '듄: 파트 3' 개봉을 앞두고 진행하는 재상영이다. '듄: 파트 2'도 12월 IMAX 재개봉을 앞두고 있다.

18일에는 임영웅의 데뷔 10주년 기념 공연 실황 '임영웅 I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가 SCREENX와 IMAX로 개봉한다. SCREENX는 촬영 단계부터 전용 연출을 고려했으며, 전 장면을 8K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해 고양스타디움 공연과 관객들의 현장 분위기를 담았다.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정면과 좌우, 천장까지 확장되는 4면 SCREENX 상영도 진행한다.



'듄', '임영웅 I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 특별관 포스터. /CGV

같은 날 개봉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폭설'은 4DX로 관객을 만난다. 폭설로 고립된 시골 기차역에서 의문의 시신을 발견한 역장과 후임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눈과 바람 효과, 모션 체어를 통해 겨울 기차역의 분위기와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의 긴장감을 구현한다.

25일에는 판타지 애니메이션 '헥스: 마녀왕국'과 '진격의 거인: 자유의 날개'가 각각 4DX로 개봉한다. '헥스: 마녀왕국'은 마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녀 빌리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비행 장면의 모션과 바람, 섬광, 향기 효과 등을 적용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러 현대미술 한자리에… 50여점 전시

갤러리 까르찌나, 한·러 초대 교류전

한국과 러시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교류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갤러리 까르찌나는 12일 서울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한·러 초대 교류전(KRAEE)'을 개막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전시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러시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라브렌티 브루니, 올가 불가코바, 알렉산더 시트니코프와 한국 작가 신종식, 이세현, 박종규, 신형섭, 홍정욱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양국 작가들의 작품 50여점을 통해 서로 다른 예술적 전통과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작가 3인은 소더비 경매를 통해 국제 미술시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이다.

이번 전시는 2021년 갤러리 까르찌나와 러시아 예술 아카데미가 체결한 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국 작가와 미술계가 예술적 성취를 공유하고 한국 현대미술의 러시아 진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갤러리 까르찌나는 이번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한·러 교류전을 정례화하고 2027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순회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 현지 미술기관과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작품 유통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시 기간에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음악, 발레 등을 주제로 한 무료 인문학 특강과 전문 도슨트의 작품 해설도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롯데시네마, '수고했수능' 할인 이벤트

수능 맞아 수험생·청소년 할인행사

롯데시네마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및 매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수고했수능'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능 시즌을 맞아 청소년의 극장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을 내려받으면 청소년 영화 관람권을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팝콘 M사이즈와 탄산음료 1잔으로 구성된 수능 콤보와 'SUPER L 팝콘'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인기 이모티콘 '눈멍냥이' 굿즈 콤보 구매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화 '폭설'과 연계한 관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폭설'을 예매한 청소년 관객에게 선착순으로 2+1 관람 쿠폰을 증정하며, 이벤트 페이지에 수험생과 후배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영화 굿즈와 관람권을 제공한다.

청소년 전용 멤버십 '틴틴클럽' 신규 가입자를 위한 경품 행사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신규 가입 후 영화를 관람한 회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올리브영 상품권과 에어팟 맥스2를 증정한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수요를 겨냥해 'SUPER L 올팝 팝콘'도 재출시한다. 기존 L사이즈 팝콘보다 용량을 2배 늘리고 한 번에 최대 4가지 맛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中수출통제로 희토류 이트륨 가격 1년새 9배로↑…日, 韓등서 수입 늘려"
▲美밴스, 이란 안보수장과 대면 회담 검토…레자이는 회동 계획 부인 /사진 뉴시스

▲트럼프 "中 밀수 엔비디아 칩 단속하라"…美 상무, 번번이 뭉개
▲中 최대 쇼핑축제 '광군제' 열기 시들…경기 둔화에 소비자들 지갑 닫아

▲10월 일본 기업물가 7.1%↑…"엔저에 수입물가 24% 급등"
▲대만, 中관광객에 '독립 인정' 각서 요구…中 "정치적 조작" 반발